

시드니, 건축유산과 도심 공원의 연계 복원 추진

<https://news.cityofsydney.nsw.gov.au/articles/sydney-park-brick-kilns-and-chimneys-to-be-preserved-and-restored>
https://www.cityofsydney.nsw.gov.au/proposed-works-maintenance/proposed-design-stabilising-landscaping-sydney-park-brick-kilns-surrounds?utm_source=cosnews&utm_medium=referral&utm_content=explainer&utm_campaign=sybrickconcept
<https://www.smh.com.au/national/nsw/the-plan-to-transform-sydney-park-s-brick-kiln-and-chimney-site-20220712-p5b10v.html>

시드니시가 시드니 공원(Sydney Park)에 남아 있는 건축유산인 벽돌 가마와 굴뚝의 구조물을 복원하고,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을 확충하는 등 공원 공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. 시는 이를 위한 디자인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.

시드니시는 도시의 산업 유산을 기리고 지역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, 2017년 지은 지 120여 년 된 벽돌 가마와 공장 굴뚝을 수리하고 복원한 바 있다. 그때 과거의 형태로 다시 세워진 네 개의 굴뚝은 시드니 공원 북서쪽으로 솟아 있으며, 시드니 공원의 특징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. 시는 복원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벽돌 가마에 손상이 생겼으며 이를 다시 안정화하고, 이 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선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. 클로버 무어(Clover Moore) 시드니 시장 또한 “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역사적 건축물과 녹지 공간의 결합”이라고 밝혔다.

발표된 디자인 개선안에는 ▲벽돌 가마의 안전화와 지붕 구조 복원 ▲벽돌 가마 주변의 울타리 제거 ▲프린스 하이웨이(Princes Highway)에서 공원과 공간에 대한 접근성 제고 ▲해당 공간 전체에 대한 유산 관점의 조사, 분석 ▲커뮤니티의 소규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잔디밭, 광장 등 공간 조성과 같은 주요 고려사항이 담겼다. 시는 특히 이번 개선안이 해당 부지와 공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시민들의 초기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 기차 철로, 공장 잔해 등 현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들을 잘 드러내도록 조성될 예정이며, 벽돌을 조경 디자인에 활용하는 등 부지의 맥락을 고려하는 디자인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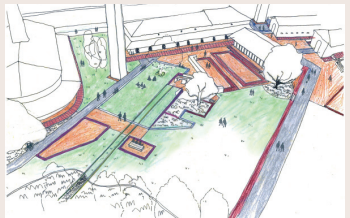
시드니 공원에서 보이는 굴뚝



1980년대 해당 부지의 모습



남아 있는 벽돌 가마



건축유산과 연계한 시드니 공원 개선안

출처: 시드니시 홈페이지, <https://news.cityofsydney.nsw.gov.au/articles/sydney-park-brick-kilns-and-chimneys-to-be-preserved-and-restored>(검색일: 2022.9.20.)